

남원에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들어선다

남원시·전북도·체육회 '건립 협약' ... 490억 투입 유·청소년 특화 첨단훈련시설 ... 2028년 완공 예정

전국의 스포츠 유소년 인재 발굴과 양성에 나설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가 오는 2028년까지 전북 남원에 조성된다.

남원시는 최근 최경식 시장과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과 전북자치도 관계자, 지역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남원시와 대한체육회 상호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지난 8월에 마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선정된 입지를 확정 짓는 자리이기도 했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제20대 대선에서의 전북 대표 지역공약사업으로 최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총 사업예산 490억원 전액 모두 국비가 투입된다. 부지는 4개 후보지 중 용역을 통해 입지여건, 경제성, 부합성 등을 평가한 결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으로 최종 결정됐다.

개관이 예정된 2028년부터 2057년까지 연간 이용수요 9만9980명, 운영수지는 총 125억4300만원의 수익이 추정됐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설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는 연 면적 1만1000㎡(운동시설 4760㎡ 기숙사 6240㎡) 규모로 훈련장과 기숙사,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는다. 1단계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착공하는 내용이며 이후에는 계획수립을 거쳐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최근 스포츠분야에서는 유소년 선수 육성 체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지난 24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와 전북자치도, 대한체육회의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협약', 박희승(왼쪽 네번째) 국회의원을 비롯해 협약서에 서명한 최경식(왼쪽 세번째)시장과 이기흥(왼쪽 다섯번째) 대한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대표 선수 중심의 훈련 환경에 집중돼 있을 뿐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종합 훈련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식 남원시장은 "중부권 이남 남부권 거점 유소년, 청소년 특화 첨단훈련시설이 될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가 남원시에 조성되는

만큼 앞으로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다양한 체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거점 활용 '택배 드론배송' 이상 無

거점 2곳·배달점 10개소 운영

드론산업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드론사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남원시의 택배 드론배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새로운 물류배송 서비스인 드론배송 사업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원시는 드론배송과 공간정보 행정서비스, 드론레저 플랫폼 개발 등 '남원형 실증모델' 3개 과제를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이중 드론배송은 드론 전문업체인 아세다와 함께 국토부의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면서 안전한 드론배송 인프라를 마련했다.

배송거점 2개소와 배달점 10개소를 설치해 드론배송 전용기체, 비행로 인증, 드론안전관리시스템 및 유통물류 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배송거점센터에서는 지리산 허브밸리, 운봉 서어나무숲, 백두대간 캠핑장, 국악의 성지 등 5개의 배달점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

이어 노암농공단지 배송거점센터에서는 시립김병중미술관, 합파우소리체험관, 요천생태습지공원, 요천수변 선착장, 십수정 부근을 대상으로 배송 중이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배달점에 설치한 안내현수막 QR코드로 접속해 앱 다운로드 후 물품 주문을 통해 드론이 직접 배송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드론 배송사업에 있어서 안전



남원시의 택배 드론배송서비스, 배송에 나선 드론이 거점지 그물망에 택배물건을 내려놓고 있다. <남원시 제공>

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을 통한 새로운 물류 서비스 이용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확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광기념품 제작업체 모집

11월 6일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특색과 상상이 담긴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해 '2024년 고창 관광기념품 제작업체 육성 사업' 참여업체를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창의 역사·문화 자원 및 관광자원을 반영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작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관광기념품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고창군 소재 제작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업체는 1개소당 70만원의 기념품 제작 지원금과 상품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또 우수상품을 대상으로 2025년 상품 판매의 기회를 얻게 된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업체 신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중선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관광기념품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참신하고 우수한 관광기념품 제작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쯔쯔가무시증 유발' 진드기 주의보

10월에만 36명 감염...기피제 배부 등 예방·홍보 활동 강화

정읍시보건소가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까지 총 36명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정읍시 발생했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만 8000여개의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태인면, 북면, 칠보면, 수성동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와 공원 등에는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진드기 기피제는 해충이 꺼리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4~5시간 동안 진드기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야외활동 시 긴소매와 긴바지,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돛자리를 사용함에 직접 앉지 않으며, 4시간마다 기피제를 사용하고, 귀가 후 즉시 세탁 및 목욕하는 등의 예방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샘고을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도비 5억 8200만원 확보

비가림 시설 교체·전기 정비 등

정읍시가 전북도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서 샘고을시장이 최종 선정돼 도비 5억 8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샘고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시장 내 노후화된 공용통로의 비가림 시설을 교체하고 전기, 소방, 통신 등 안전에 필수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샘고을시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학수 시장이 공모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며 전북자치도의 예산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도의원과 상인회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얻어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샘고을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만들어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